

##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DEPRESSIVE TRAIT IN YOUNG ADOLESCENTS

이 현 만\*† · 한 성 희\*\*

Hyun Mahn Lee, M.D.,\* Sung Hee Han, M.D.\*

연구 목적 :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아·청소년의 우울 성향과의 상호 관련 양상을 연구한다.

연구 방법 : 남녀 중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소아우울척도와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이용한 자가보고형 설문형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우울성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모와의 결합의 형태에 따라 군을 분류하여 보았을 때 부모 모두 돌봄이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고,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결 론 :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과보호가 적고 돌봄이 많은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과보호가 많고 돌봄이 적을수록 우울성향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청소년 · 부모 양육태도 · 우울.

## 서 론

소아 또는 청소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이며 소아와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정서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생애 초기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고, 이 초기 경험 중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성격과 행동 및 정신 병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격은 물론 자아 개념, 태도 및 행동 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

원식 1975).

Parker등(1979)은 이러한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 사이 결합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이하 PBI)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여러 정신 장애에서의 부모와 자녀 결합의 특성에 있어서 이 도구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arker와 Lipscombe(1979)는 천식 환자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 성향이 의미있게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건강 염려증 환자의 경우에서도 어머니의 과보호가 보고된 바 있고(Baker와 Merskey 1982), 양극성 우울증 환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상 대조군과 유사하게 지각

\*국립서울정신병원 일반정신과 Department of General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국립서울정신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Corresponding author

하는 반면 신경증적 우울증 환자는 부모를 애정이 없고 과보호 성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한다는 보고(Parker 1979)도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사이 결합의 특성을 연구하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공격적 행동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를 애정이 없고 간섭이 심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Rey와 Plapp 1990), 부모의 태도를 애정이 없고 과보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에서 자살사고와 우울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Martin과 Waite 1994)도 있어, 청소년기의 정신 사회적 장애에 대한 비특이적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 결합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Rene Spitz(1946)가 의존성 우울증(anacletic depression)을 보고한 이후로 우울증은 유아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에서 보이는 우울증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소아 또는 청소년에서의 주요 정신장애의 하나로서 우울증의 존재 유무는 학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의 경향은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하나의 진단범주로 보려는 노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강봉선 등 1987) DSM-III(1980)에서는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에서 연령에 따른 증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권유한 바 있고, DSM-III-R(1987)과 DSM-IV(1994)도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과는 달리 유아기부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 고유의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임상적 특성이 있으며 부모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함과 동시에 부모 이외 또다른 동일시의 대상을 찾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이란 의존 또는 독립이라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와 더불어 부모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들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아·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남녀 공학 중학교 1, 2, 3학년 가운데 학년별로 각 2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98명 중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부적절한 11명의 응답은 제외하여 287명이 통계 처리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남자는 142명, 여자 145명이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도구

#### 1) 연구 방법

저자 중 일인이 피검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Sex	
Male	142(49.5)
Female	145(50.5)
Age(years)	13.79±0.89*
Birth order	
First born	111(38.7)
Middle born	24( 8.4)
The last born	128(44.6)
The only born	24( 8.4)
Socioeconomic status	
High	6( 2.1)
Middle	242(84.3)
Low	24( 8.4)
No answer	15( 5.2)
Education level of father	
Uneducated	0( 0.0)
Primary	9( 3.1)
Junior	36(12.5)
Senior	166(57.8)
University	44(15.3)
Post-graduate	2( 0.7)
No answer	30(10.5)
Education level of mother	
Uneducated	0( 0.0)
Primary	14( 4.9)
Junior	85(29.6)
Senior	151(52.6)
University	10( 3.5)
Post-graduated	0( 0.0)
No answer	27( 9.4)

\*Mean±S.D.

후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및 기타 인구학적 자료를 자가 보고형 설문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 2) 연구 도구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Kovacs과 Beck(1977)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이용한 바 조수철과 이영식(1990)에 의한 한국어판 소아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1967)를 8~13세의 소아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것은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자가 평가법으로 반영토록 고안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그 정도에 따라서 0~2점으로 평가되므로 총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PBI를 이용한 바 PBI는 Parker등(1979)이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Gamsa(1987)에 의해 문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PBI는 16세 이전까지 자신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억하여 각 항목에서 '아주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전혀 안그랬다'의 4개 평정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결합에 작용하는 부모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가 보고형으로 작성된다. Parker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요인을 사랑과 공감 대 냉정과 무관심으로 간주하여 이를 돌봄(care) 차원으로 정의하였고, 둘째 요인을 과보호와 간섭 대 독립과 자율성의 격려로 보아 이를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으로 정의하였다(Parker등 1979). 따라서 PBI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에 대한 돌봄(care)차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의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Parker는 돌봄과 과보호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나누어 보았을 때 다섯 가지의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돌봄과 과보호가 평균(average)인 군,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optimal bonding-적합한 결합군), 돌봄도 많고 과보호도 많은 군(affectionate constraint-애정은 있으나 간섭이

심한 군),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absent or weak bonding-결합이 미약하거나 없는 군),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affectionless control-애정없는 통제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합형태는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형태(optimal bonding)라고 하였다(Parker 1979). 본 연구에서도 부모 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 각각에 있어 과보호와 돌봄에 따라 군을 분류하였다. 군 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돌봄차원의 점수가 상위 1/3인 집단을 돌봄이 많은 군으로 분류하였고, 하위 1/3의 집단을 돌봄이 적은 군으로 구분하여 중간점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과보호 차원에 대해서도 역시 과보호 점수가 상위 1/3인 과보호가 많은 집단과 하위 1/3인 과보호가 적은 집단으로 나누었고 중간점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I군), 돌봄이 많고 과보호도 많은 군(II군),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군),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군)의 네 군으로 구분하였다(Fig. 1).

## 3. 통계 방법

대상 인원 총 298명 중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11명의 응답을 제외한 287명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였다. 소아우울척도(CDI) 점수와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의 4가지 소척도, 즉,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 아버지의 돌봄과 과보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이 경우 아버지가 부재한 7명은 제외하여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 성별과 CDI 및 PBI의 유의성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돌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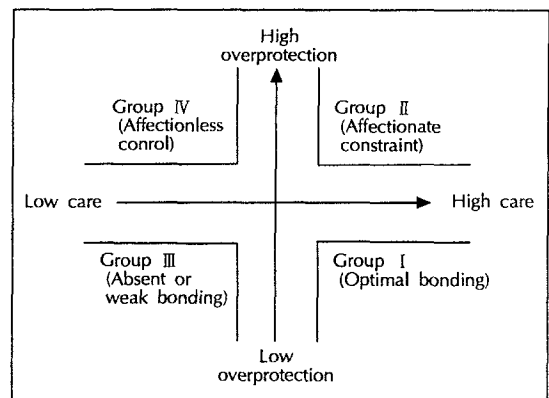


Fig. 1. Grouping by the two scales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과보호 두 축으로 나눈 4군간의 CDI의 비교 역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 검증에서 군간의 차이는 Scheffe procedure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모든 통계분석은 SSPC/PC<sup>+</sup>를 이용하였다.

## 결 과

1) 소아우울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15.75±6.23이었고, 남자에서 14.96±5.82, 여자에서 16.55±6.54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F=4.55, p<0.05)가 있었다(Table 2).

2) 학년별 CDI 점수의 평균치는 1학년 15.43±6.23, 2학년 15.82±5.98, 3학년 16.02±6.53이었으며, 학년별 차이의 통계적인 의의(F=0.193, p>0.05)는 없었다(Table 3).

3) 전체 대상에 대한 PBI의 평균점수는 어머니 돌봄 척도는 20.42±2.87, 어머니 과보호 척도는 16.02±5.17, 아버지 돌봄 척도는 19.78±2.92, 아버지 과보호 척도는 14.51±4.77이었다. 남학생에서의 PBI 평균 점수를 보면 어머니 돌봄 척도는 20.47±2.64, 어머니 과보호 척도 15.84±5.16, 아버지 돌봄 척도 19.47±2.79, 아버지 과보호 척도 14.12±4.43이었고, 여학생에서는

어머니 돌봄 척도 20.37±3.10, 어머니 과보호 척도 16.20±5.20, 아버지 돌봄 척도 20.09±3.02, 아버지 과보호 척도 14.90±5.08로 부모의 돌봄 및 과보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학년별 PBI의 평균점수에서는 어머니의 돌봄(F=3.51, p<0.05), 어머니의 과보호(F=3.33, p<0.05), 아버지의 돌봄(F=5.87, p<0.005)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어머니의 돌봄과 아버지의 돌봄을 적다고 지각하였고, 반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높다고 지각하였다. 아버지 과보호 점수에서는 의미있는 학년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0.58, p<0.05)(Table 5).

5) PBI의 4가지 소척도와 CDI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의 돌봄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과보호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모의 돌봄이 적다고 지각하거나 부모의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돌봄(Pearson 상관계수 : -.1733, p<0.01)과 과보호(Pearson 상관계수 : .1577, p<0.01)보다는 어머니의 돌봄(Pearson 상관계수 : -.2146, p<0.001)과 과보호(Pearson 상관

**Table 2.** The mean scores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in boys and girls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score			F-value	df	p-value
	Total(N=280)	Boys(N=140)	Girls(N=140)			
Mean	15.75	14.96	16.55	4.55	1	p<0.05
S.D.	6.23	5.82	6.54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The mean scores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in 1st, 2nd and 3rd grades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score			F-value	df	p-value
	Grade(N=95)	Grade(N=92)	Grade(N=93)			
Mean	15.43	15.82	16.02	0.193	2	n.s.
S.D.	6.23	5.98	6.53			

S.D.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Table 4.** The mean scores of subscales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boys and girls

	Total(N=280) (mean±S.D.)	Boys(N=140) (mean±S.D.)	Girls(N=140) (mean±S.D.)	F-value	df	p-value
maternal care	20.42±2.87	20.47±2.64	20.37±3.10	0.09	1	n.s.
maternal overprotection	16.02±5.17	15.84±5.16	16.20±5.20	0.25	1	n.s.
paternal care	19.78±2.93	19.47±2.79	20.09±3.02	3.60	1	n.s.
paternal overprotection	14.51±4.77	14.12±4.43	14.90±5.08	1.82	1	n.s.

S.D.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계수 :  $-.2664, p < 0.001$ )에 상관관계가 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우울성향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적거나 과보호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학생에서 우울성향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Pearson 상관계수 :  $.3031, p < 0.001$ ), 남학생에서는 어머니를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 성향이 뚜렷히 높음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  $.2308, p < 0.01$ ), 아버지의 돌봄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Pearson 상관계수 :  $-.2672, p < 0.01$ ), 여학생에서는 어머니를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거나 아버지가 돌봄이 적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6).

6) 부모 각각의 돌봄 및 과보호 두 축에 따라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I군), 돌봄이 많고 과보호도 많

은 군(II군),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군),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CDI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네 군간의 CDI의 평균점수에서 의미있게 차이있는 군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고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어머니와의 결합 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각 군의 소아우울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 $F=5.08, p < 0.005$ )과 여학생( $F=3.58, p < 0.05$ ) 모두 '적합한 결합군(I군)'과 '애정없는 통제군(IV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7). 즉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어머니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전

**Table 5.** The mean scores of subscales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1st, 2nd and 3rd girls

	Grade 1 (mean±S.D.)	Grade 2 (mean±S.D.)	Grade 3 (mean±S.D.)	F-value	df	p-value
maternal care	21.04±2.71	20.01±2.75	20.19±3.07	3.51	2	$p < 0.05$
maternal overprotection	15.23±5.14	15.73±5.16	17.12±5.09	3.33	2	$p < 0.05$
paternal care	20.43±3.01	19.86±2.76	19.03±2.83	5.87	2	$p < 0.005$
paternal overprotection	14.08±4.48	14.64±4.92	14.82±4.93	0.58	2	n.s.

S.D.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bscales of PBI and scales CDI

	CDI		
	Total	Boys	Girls
maternal care	$-.2416^{**}$	$-.2160$	$-.2129$
maternal overprotection	$.2664^{**}$	$.3031^{**}$	$.2308^*$
paternal care	$-.1733^*$	$-.0949$	$-.2672^*$
paternal overprotection	$.1577^*$	$.1542$	$.1449$

PBI : Parental bonding instrument, CDI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 < .01, **p < .001$

**Table 7.** CDI scores of groups according to maternal care and maternal overprotection score

	Parental bonding position				F-value	df	p-value
	I High care, Low over- protection	II High care, High over- protection	III Low care, Low over- protection	IV Low care, High over- protection			
Total	13.50±6.21*	17.23±5.96	16.81±6.09	19.27±6.28*	7.57	3	$p < 0.001$
Boys	12.69±5.88*	16.09±5.07	14.47±5.33	18.52±4.79*	5.08	3	$p < 0.005$
Girls	14.31±6.54*	18.07±6.57	19.64±5.90	19.96±7.38*	3.58	3	$p < 0.05$

by one way ANOVA,  $*p < 0.05$  by Scheffe, CDI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able 8.** CDI scores of groups according to paternal care and paternal overprotection score

	Parental bonding position				F-value	df	p-value
	I High care, Low over- protection	II High care, High over- protection	III Low care, Low over- protection	IV Low care, High over- protection			
Total	14.44±6.13*	15.81±6.61	14.59±7.64	17.90±5.21*	4.30	3	p<0.001
Boys	14.38±5.62	14.93±3.15	12.49±5.56*	17.44±5.32*	4.68	3	p<0.005
Girls	14.50±6.65	16.43±5.41	19.64±9.65	18.34±5.15	2.70	3	0.051

by one way ANOVA, \*p<0.05 by Scheffe, CDI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체적으로 볼 때 '적합한 결합군(I군)'과 '애정없는 조절군(IV)' 사이에서 소아 우울척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아버지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다소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학생은 III군과 IV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았고,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고 찰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동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며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결합(bond)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각 개인에서 어떠한 형태로 결합이 발전되고 조직화되느냐에 따라 안정감 있고 건강한 정신내적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Bowlby 1988). 애착(attachment)이란 아동과 양육자(care-taker)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생물학적 생존욕구에 근거한 원초적 관계의 정서적인 느낌을 의미하며, 그러한 기본적인 유대관계가 설정될 때에 비로소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정감적 반응속에서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보살핌이나 정감적인 반응성의 결여시 아동은 일차적 대상인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후 다양한 정신병리로 발전할 개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Jacobson등(1975)은 유년기 박탈(childhood deprivation)을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대상관계가 결여되었거나 상실 또는 부재"인 것으로서 정의한 바 있으며, Perris등(1980)은 박탈이란 부모의 실제 상실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Bowlby(1977)는 부모상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올바른 자아상이 발달할 수 없다고 하였고, Parker(1979a, 1983b)는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의함에 있어 "애정은 없이 과도하게 통제만 하려는 관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Parker등(1979)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여 부모-자녀 결합에 작용하는 부모의 요인에 대해 검증하려 시도한 바 신경증적 우울증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부모의 돌봄이 적고 어머니가 과보호적이며(Parker 1979), 불안 신경증군의 부모들 역시 대조군에 비하여 관심이 덜하고 과보호적 태도가 있었다는 연구를 보고하면서(Parker 1981a) 정신병리와 부모의 양육태도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Parker 1979; Parker와 Lipscombe 1979). 이 외에, 공포증 환자군에서는 부모 모두 정감적 보살핌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는 연구(Arrindell등 1983)가 있으며, 정신신체 질환의 하나인 천식 환자와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가 상호 연관된다는 연구(Parker와 Lipscombe 1979) 등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저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PBI의 4가지 소척도(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 및 아버지의 돌봄과 과보호)와 CDI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의 돌봄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

모의 과보호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참조). 즉 부모의 돌봄이 적다고 지각하거나 부모의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적거나 과보호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현저히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부모 돌봄의 부족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양극성 우울증 환자군은 부모 돌봄의 정도에 대하여 대조군과 유사하게 지각하는 반면, 신경증적 우울증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적었다고 보고한다고 하였고(Parker 1979), 내인성 우울증 환자군은 부모의 돌봄 척도에서 대조군과 다르지 않았으나 신경증적 우울증 환자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을 잘 돌보아주지 않았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Parker 등 1987),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돌봄이 적었다고 인식하는 경우 주요 우울 장애에 한정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신병리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 평생에 걸쳐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Parker 등 1995)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부모, 특히 어머니의 돌봄 부족과 우울증의 취약성이 과연 어떠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Birtchnell(1988)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성격구조의 기저에 무가치감과 무력감이 있어 이러한 감정을 자극받는 상황에서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 어린 시절 겪은 수용(acceptance)과 거절(rejection)에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자신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어린 아이가 충격적인 거부를 당할 때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상처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며 이는 자기 비난의 형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어린시절 부모의 상실이나 이별은 아동으로 하여금 거절에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부모가 보이는 명백한 거부적 태도가 상실이나 이별의 경험보다 더욱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에서 역시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Table 7과 Table 8 참조).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가 여러 신경증 및 정신증과 연관된다는 연구들(Parker 1981b; Parker와 Lipscombe 1981; Baker와 Merskey 1982)이 있

으며, 그중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양극성 우울증환자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대조군과 비슷하게 지각하는 반면 신경성 우울증환자는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것으로 지각한다는 보고가 있고(Parker 1979), 어머니를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에서는 현재 우울감이 없는 상태라고 우울증에 걸릴 심리적인 위험요인이 높다고 보고되어(Kerver 등 1992),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서도 부모, 특히 어머니가 간섭이 심하고 과보호적인 경우 우울성향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Levy(1943)는 20명 어린이의 어머니를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나타내는 과보호의 특징이란 지나친 접촉, 계속되는 어린애 취급, 독립적 행동 억제, 지나친 간섭이라고 하였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에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Parker(1979)는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제한되어 자기 존중감이 잘 발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Seligman(1975)이 제시한 학습된 무력상태로서의 우울증 유형이론(learned helplessness model)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그는 유기체가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없을 때 3가지 형태의 와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반응하려는 동기가 감소되고, 성취감이 악화되며,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이다.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어린애 취급하며 독립성을 좌절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게 됨으로써 우울해질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Parker 1979). 또한 최근의 연구(Parker 1993)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취약한 인지 유형이 유도되어 우울증의 소인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강박적이며 간섭이 많은 부모 자체의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시 과보호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겁이 많다거나, 수줍음을 타거나,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것과 같은 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유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Parker와 Lipscombe 1981).

Parker 등(1979)은 PBI의 돌봄척도와 과보호척도에 따라 돌봄과 과보호가 평균인 군,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 돌봄도 많고 과보호도 많은 군,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 및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 다섯

가지 부모-자녀 결합 형태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중 과보호가 적고 돌봄이 많은 유형을 적합한 결합(optimal bonding)으로 정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결합형태로 보았고, 과보호가 많고 돌봄은 적은 유형을 애정없는 통제군(affectionless control)으로 정의하고 자녀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합형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성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arker(1979)의 방법을 변형하여 피검자들의 부모 각각에 대해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우울정도를 비교하였다. 어머니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각 군의 소아우울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예상되었던 I 군 '적합한 결합'(optimal bonding)군과 가장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IV 군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군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고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7 참조).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어머니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각 군의 소아우울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적합한 결합군(I 군)'과 '애정없는 조절군(IV)' 사이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아버지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8 참조). 이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Parker(1979)의 연구에서 돌봄이 적고 과보호가 많은 결합형태에 속한 대상자들은 다른 결합형태에 속한 대상자들에 비해 우울 성향이 가장 높았고 자아 존중감은 가장 낮았다는 연구 보고나, 부모의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는 성인기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Parker 1983b) 및 부모가 애정이 없고 과보호적인 청소년에서 자살사고와 우울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었다는 보고(Martin 1994) 등의 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아버지와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군을 분

류하고 각 군의 소아우울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경우에는 저자들이 예상하였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남학생은 I 군과 IV 군 사이에서 보다 III 군과 IV 군에서 더 현저한 차이를 보여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 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았고,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 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각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 군)이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 군)에 비해 소아우울척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즉 남학생에서는 아버지를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다고 지각하는(III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우울성향이 가장 낮은 반면 여학생에서는 반대로 III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우울성향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군을 분류하였을 때 대상 전체에서의 결과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었을 때의 소아우울척도 평균점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와의 결합형태가 어머니와의 결합형태와는 실제 다른 기전으로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집단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수가 축소함으로써 생기는 통계적인 오류인지 또는 제 삼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인지는 본 연구만으로는 추정에 한계가 있으며, 추후보다 광범위하고 통계적인 후속 연구로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우울 성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며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취시키는 경우 청소년에서 우울 성향은 감소되는 반면, 부모가 애정은 없고 무관심하면서 과보호와 간섭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 성향이 뚜렷이 높아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결과들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몇 가지의 다른 설명이 제기될 수도 있다. 첫째, 우울증적 기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를 부정적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Parker(1981b)는 자신의 연구 결과 우울의 정도에 따라 PBI의 점수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둘째,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실제의 부모 양육태도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Parker(1981b)의 연구에 의하면 PBI점수는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가족내의 제 삼자가 보고한



접수와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 PBI의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다. 세째, 우울이 심하거나 성격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부모로 하여금 제대로 돌보지 않도록 했거나 높은 과보호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과가 없는 것 같다 (Parker 1981b).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정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바 남학생에서는 우울도와 어머니의 과보호간에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여학생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정적인 상관관계, 아버지의 돌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el 6 참조). 즉 남학생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 성향이 높았었고 여학생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심할 때 우울 성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절히 잘 돌보아 주지 않았던 경우에서도 우울 성향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서의 우울증과 아버지의 돌봄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Birtchnell(1988)은 25세와 34세 사이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의 많은 수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돌봄이 적고 과보호가 많았던 반면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Harris등(1986)도 아버지의 돌봄이 적은 것보다는 어머니의 돌봄이 적은 것이 여성의 우울증에 더 일관되게 관련된다며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Kitamura등(1994)은 아버지의 돌봄이 적었고 어머니의 과보호가 많았던 여성에서는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보고를 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들 결과만으로 여학생의 우울성향에 아버지의 돌봄의 부족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 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오류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Table 2 참조). 국민학교 4.

5, 6학년울 대상으로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에서 다소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Kovacs(198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중학생의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외국의 여러 연구(Emslie등 1990; Garrison등 1990; Roberts와 Chen 1995)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여아에서 뚜렛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모 양육태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원인으로서 본 연구 대상자의 지역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이차 성장의 출현에 기인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 고려될 수 있겠다.

학년간에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 바(Table 3 참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돌봄은 적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많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다. 첫째, 실제로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적어지고 오히려 간섭과 통제만 하려는 태도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실제의 양육태도와는 상관없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제2분리 개별화(secondary separation-individuation)라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가 부각되면서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세째, 위의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 중 어떤 설명이 가장 타당한지는 본 연구만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보다 통제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저자들의 견해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부모 이외의 동일시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를 간섭이 많고, 통제적이며 또한 과보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며 이런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 부모들의 성격 및 정신병리를 직접 평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둘째, 형제 및 친지들과의 관계 및 의사 소통 형태 등 부모 이외의 가족관계 및 역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세째, 자가 보고형 설문 방식만을 이용하였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얻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CDI와 PBI의 객관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각각 한가지 도구만으로 부모-자녀 결합 형태 및 우울 성향에 대한 대표성을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학교 한곳에서만 대상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소년기의 우울에 관련된 요인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환경과 학교, 사회 환경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PBI는 임상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우울증의 위험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요 약

서울시내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및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아·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BI의 4가지 소척도와 CDI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의 돌봄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과보호 척도와 우울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모의 돌봄이 적다고 지각하거나 부모의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성향이 높았다. 아버지의 돌봄과 과보호보다는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에 상관관계가 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녀의 우울성향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적거나 과보호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학생에서 우울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 각각의 돌봄 및 과보호 두 축에 따라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은 군(I군), 돌봄이 많고 과보호도 많은 군(II군), 돌봄도 적고 과보호도 적은 군(III군),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은 군(IV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CDI 점수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어머니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어머니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와의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된 군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돌봄이 많고 과보호는 적다고 지각하는 군(적합한 결합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아버지를 돌봄은 적고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군(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성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보호가 적고 돌봄이 많은 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과보호만 있고 돌봄이 적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우울성향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청소년 · 부모 양육태도 · 우울.

## References

- 강봉선 · 이만홍 · 이호영 · 김호영 · 김경희 · 노경선 (1987) : 학령기 아동에 있어서의 우울과 불안증상. *중앙의학* 52 : 755-763
- 송지영(1992) :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 979-992
- 정원식(1975) : 인간과 교육. 배영사. 서울, pp91
- 조수철 · 이영식(1990) :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 943-95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3rd ed, Revis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 Arrindell WA, Emmelkamp PMG, Monsma A, Brillman ELS(1983) :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aetiology of phobic disorders : A controlled study. *Br J Psychiatry* 143 : 183-187
- Baker B, Merskey H(1982) : Parental representations of hypochondrical patients from psychiatric hospital. *Br J Psychiatry* 141 : 233-238

- Beck AT(1967) :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arper & Row, New York
- Birtchnell J(1988) :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 A study of young, married women on a London housing estate. *Br J Psychiatry* 153 : 758-769
- Bowlby J(1977) :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Br J Psychiatry* 130 : 201-210
- Bowlby J(1988) :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 J Psychiatry* 145 : 1-10
- Emslie GJ, Weinberg WA, Rush AK, Adams RM, Rintelmann JW(1990) : Depressive symptoms by self-report in adolescence : Phase I of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for depression by self-report. *J Child Neurol* 5 : 114-121
- Gamsa A(1987) :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60 : 291-294
- Garrison CZ, Jackson KL, Marsteller F, McKeown R, Addy C(1990) :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ng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9 : 581-585
- Harris T, Brown GW, Bifulco A(1986) : Loss of parent in childhoo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 : The role of lack of adequate parental care. *Psychol Med* 16 : 641-659
- Jacobson S, Fasman J, DiMascio A(1975) :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an. *J Nerv Ment Dis* 160 : 4-14
- Kerver MJ, van Son MJM, de Groot Pa(1992) : Predicting symptoms of depression from reports of early parenting : A one-year prospective study in a community sample. *Acta Psychiatr Scand* 86 : 267-272
- Kitamura T, Toda MA, Shima S, Sugawara M(1994) : Early loss of parents and early rearing experience among women with antenatal depression. *J Psychosom Obstet Gynaecol* 15 : 133-139
- Kovacs M, Beck AT(1977) :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edited by schulterbrandt JG, Raskin A, Raven Press, New York, pp1-25
- Kovacs M(1983) :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Levy DM(1943) : Maternal overprot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Martin G, Waite S(1994) :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 Scand* 89 : 246-254
- Parker G(1979) :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 J Psychiatry* 134 : 138-147
- Parker G, Lipscombe P(1979) :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sthma. *J Psychosom Res* 23 : 295-299
- Parker G, Tupling H, Brown LB(1979) :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52 : 1-10
- Parker G(1981a) :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anxiety neurosis. *Acta Psychiatr Scand* 63 : 33-36
- Parker G(1981b) :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s : An investigation of several explanation. *J Affect Disord* 3 : 131-40
- Parker G, Lipscombe P(1981) : Influences on maternal overprotection. *Br J Psychiatry* 138 : 303-311
- Parker G(1983b) :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delineated. *Arch Gen Psychiatry* 40 : 956-960
- Parker G, Kiloh L, Hayward L(1987) : Parental representations of neurotic and endogenous depressives. *J Affect Disord* 13 : 75-82
- Parker G(1993) : Parental rearing style : Examining for links with personality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8 : 97-100
- Parker G, Hadzi PD, Greenward S, Weissman M(1995) : Low parental care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J Affect Disord* 33 : 173-180
- Perris C, Jacobson L, Lindstrom H, Von Knorring L, Perris H(1980) :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Acta Psychiatr Scand* 61 : 265-274
- Rey JM, Plapp JM(1990) :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9 : 382-385
- Roberts RE, Chen YW(1995) :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origin and Anglo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4 : 81-90  
Seligman MEP(1975) : Helplessness. San Francisco : W. H. Freeman. Cited from Parker G(1979) :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 J Psychiatry* 134 : 138-147  
Spitz R(1946) : Anaclitic depression. *Psychoanal Study Child* 2 : 113-117. 조수철·최진숙(1989) : 소아·청소년의 우울장애. *신경정신의학* 28 : 422-434에서 인용

ABSTRACT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7 : 167~178, 1996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DEPRESSIVE TRAIT IN YOUNG ADOLESCENTS

Hyun Mahn Lee, M.D., Sung Hee Han, M.D.

*Department of General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Object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depressive trait in adolescents.

**Methods** : 287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and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Results** : Relations between two sets of variables were examined by means of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t was suggest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had more influence on the depressive trait of adolescents. The mean scores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whose parents had been overprotective and less careful, than whose parents had been careful and not overprotective.

**Conclusion** :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adolescents' depress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arenting style. Among parental bonding types, the high care-low overprotection type was most favorable and the low care-high overprotection type was worst.

**KEY WORDS** : Adolescent · Parental bonding · Depression.